

이순신 詩文의 한글 번역에 대하여

이내원

이순신 숭모인

이순신 막하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전사장면을 정확히 묘사 기록한 호남의 절의있는 젊은 선비 趙慶男은 그의 일기 「난중잡록」에 이순신의 시문은 20여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나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숫자는 7, 8 수에 불과하다.

이들 시문은 한시이며 그나마 초서체로 심히 흘려 써져있어 때로는 글자 자체의 독해가 헛갈리는 때가 있고 또 이 한시를 우리말로 국역하는 데는 번역한 사람에 따라 넘치고, 부족하고 부정확한 수많은 사례들을 낳고 있어 이들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閑山島 月明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上戍樓	수루에 혼자 앉아
撫大刀	큰 칼 옆에 차고
深愁時	깊은 시름하는 차에
何處 一聲羌笛	어디서 일성호가는
更添愁	나의 애를 끊나니

이 시조는 원 제목이 「한산도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입에 달고 살다 시피하는 가장 잘 알려진 이순신 시조로 우리나라 충무공 숭모 연구 선양의 독보적 일인자요 뛰어난 문인이신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번역이다.

그러나 이 번역에는 필자가 2005년 4월 제 1회 이순신 문학의 밤에서 제기했듯이 결정적인 오역이 발견되고 있다. 문제되는 부분은 「撫大刀」로 「撫」의 본 뜻은 발레의 ‘안무’ 나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애무’의 용례와 같이 ‘어루만지다’ 라는 뜻으로 노산 선생님의 번역처럼 무엇을 ‘차다’ (着 또는 帶)는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 시조의 전체적 정황은 달밤에 외로이 홀로 앉아 옆에 놓인 칼을 무심결에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경직된 인상의 ‘칼을 차다’와는 거리가 있다.

또 이 번역의 두번째 줄에서는 ‘얕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얕은 모습과 칼을 찬 모습은 어울리는 연결이 아님을 지적할 수도 있다.

워싱턴문인회보다 약 7개월 뒤인 2005년 11월에 발간된 해군 충무공 수련원의 교재 「충무공 이순신」에서도 이 부분을 “큰 칼 어루만지며 깊은 시름하는 적에” 로 새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이순신 서정시의 백미(白眉)로 꼽고 있는 閑山島夜吟(한산도야음)을 살펴 보기로 한다.

水國秋光暮 한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驚寒雁陳高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憂心輾轉夜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드는 밤
殘月照弓刀 새벽달 창너머로 칼과 활을 비추네

(이은상 역)

이 번역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새김말은 ‘水國’의 번역 ‘한바다’이다.

이은상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걸출한 문인으로 ‘물나라’라는 평이한 번역말을 위하여 좀더 멋스러운 ‘한바다’를 택하신듯 하지만 ‘한바다’는 육지나 섬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망망대해를 연상시켜 ‘온통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을 풍광을 전해주는 초목이 어우러진 땅이 있는 섬나라’를 그린 원문 제 1련과 유리된 느낌이 있어 ‘물나라’ 또는 ‘섬나라’가 더욱 어울리는 역어가 아닐까 싶다.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雁陳(안진)이다. 이 말은 여러 마리의 기러기가 진을 치듯이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말로 그냥 ‘기러기’ 보다는 ‘기러기 떼’가 더 좋은 번역이 될 것으로 본다. 이순신의 軍陣 위를 날으는 기러기 떼를 雁陳으로 대비한데서 이순신의 문학적 천재성을 보는 듯하다.

인기 경제학자로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를 저술한 지용희 교수는 陣高로 묶어서 “기러기가 진지 위를 높이 날으는구나”라고 새로운 번역을 가하고 있으나 필자는 공감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弓刀(궁도)는 당연히 ‘활과 칼’로 번역했어야 했는데 ‘칼과 활’로 되어 있어 편집 및 인쇄식자상의 착오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의 번역을

물나라에 가을 빛 저물었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드는 밤
새벽달 창 너머로 활과 칼을 비추네

로 하고 있다.

아산 현충사 유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두자루 이순신의 장검에는 각각 한련의 劍銘(검명-칼에 새긴 글)이 새겨져 있고 이 두련을 하나로 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완벽한 對句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이 對聯의 절묘함은 三과 一의 숫자적 대비와 山河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三尺은 三尺長劍의 줄임말로 잘못 번역될 소지가 적으나 끝자 色이 많은 오역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山河動色을 ‘산하의 색깔이 변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色은 빛깔을 뜻하는 색이 아니고 氣色(기색-기미)이 있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 대련의 바람직한 번역은

석자 장검을 들어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떠는 듯 하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정도가 될 듯하다.

한시의 국역은 역자에 따라 맛이 다른 다양한 시어로 재생되는 재미와 여지가 있어서 좋으나 원문의 시적 정황에 잘 맞는 역어를 선택하므로써 너무 유리된 번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제도 필요한 것이다.